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연회 총무소 충청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교역자·장로기도회 (지난 주 목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초대교회로의 복귀

지난 주 목요일(22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충현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장로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배다나홀로 이동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신임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소개와 찬양이 있는 후, 한시간 가량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다.

이날 예배를 통하여 위임목사는 사도행전 2:42-47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는 초대교회

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으로 시작된 '성령의 공동체'임을 강조하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였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공동체'라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신학자가 아닌, 너무나 평범한 어부를 통하여 구약의 요엘서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인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함으로써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전하면서, 충현교회가 그리스도인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

는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기도회 시간에는 위임목사의 사역을 위해,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그리고 5대 목표와 각 기관의 행사와 새로운 일꾼을 위해 기도하였다.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모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속히 충현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다하는 성령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난 주간 새벽기도 (4월 9일부터 14일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다. 그분의 고난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이다. 그리고 오직 단 한명의 죽음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완전한 고난이다. 무엇 때문인가? 죄인을 대속하고 구속하기 위함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바울전서 3:18).

신자들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혼동하는 것 같다. 눈물과 감격으로 실제적인 십자가를 대신하려는 감상적인 고난, 또는 자신이 당하는 어려운 상황! 혹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않는가?를 물렸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당하신 모든 고난을 생각하면 즉시로 그 이유가 우리의 영혼 때문임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오해와 멸시를 받으셨고, 그의 모든 백성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혼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인한 고난을 육체에 채워보자. 가족들의 영혼과 이웃들의 영혼, 그리고 마땅히 주께서 찾으셔야 할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보자.

지난 수요일에 다시

‘근심’(창상 17:14)

"나의 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창).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군심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요, 근본적인 원인은 약한 아합왕 때문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경제와 번영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였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땅에서 당하신 모든 동안 비가오지 않았다. 시냇물이 마르고, 모두가 고통에 빠진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사르밧에서 남편 외의 아이들과 살아 가는 이연이 처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삶의 심각함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7절, 1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심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이방 여인에게 나타나셨다(8,9). 하나님은 오직 가주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을 남겨놓은 가난한 이 여인을 종으로 선택하셨고, 그녀가 거저주고 있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날까지 그녀의 간청으로 보살핌을 받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죽음을 면류관인 그녀의 군심은 사라져버렸다. 군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인하여 기쁨이 된 것이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찬양할 그녀의 행복을 상상해 보라! 훗날에 예수께서는 믿음에 대해 가르치실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많은 부모 가운데 이방여인에게 보살핌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에 대해 말씀하셨다(눅 4:26). "그녀는 진정으로 만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올라서 군심을 기쁨으로 바꾼 믿음의 여인이었다."

우리는 왜 군심을 하게 되는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곧 군심에 눌리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난해보다 자기 자신을 강하게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심은 우리들의 영혼 속으로 도둑처럼 몰려들며 두려와서 기쁨과 소망을 훔쳐간다. 어떻게 군심을 물리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을 낳으며, 순종은 군심을 물리치기 때문이다. 연약한 여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힘없는 여인과 그녀의 소망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해 없으시다. 그가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실 것인가!(민23:19).

* 이방인을 위해 복음사를 기록한 누가가 이방여인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의 교훈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리가 없다. 또한 유가복을 7:11-16에서는 예수께서 나단성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경이이 묘사되고 있는데,오늘의 본문 뒤에 엘리야가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광경과 유사하다. 누가는 구원, 즉 구약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임했음을 철저하게 드러냄으로써, 예수는 분명히 모든 인류의 하나님임이시며 생명의 그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

4월 위임목사 설교

일시	예배	본문	제목
4월 1일	2·3·5부	히 13:7-9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4월 8일	3·5부	눅 8:35	예수님의 발 아래
4월 15일	1·3·4부	눅 24:13-34	부활하신 예수님
4월 22일	3·5부	마 19:26	그의 능력
4월 29일	2·3·5부	빌 3:13-14	오직 한 길

신학 칼럼

교회의 사명

교회에 대한 신약의 단어는 "에클레시아"이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교회의 리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내인이 되라(눅1:8)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에 빛진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중언이 되어야 한다는 교회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중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죽으셨던 것처럼, 복음에 빛진 우리들도 마땅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서도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위하여 오늘도 교회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리인이나 아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눅1:4)

류병복 (목사, 대학부 지도)

예배시간 변경안내

4월부터 수요일 예배와 금요찬양집회 시간이 30분씩 늦추어진다. 따라서 4월 5일 수요일부 예배와 4월 7일 금요찬양집회부터는 예배와 집회가 각각 7시 30분에 시작된다.

THE CHANGELESS JESUS CHRIST

(Hebrews 13:7-9)

“...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

We are living in a changing world! Over the past 100 years there has been more changes in human history than during our whole human history. It's truly incredible. A hundred years ago people thought about horse power, nobody imagined 90 miles per hour. Back then nobody thought about 100 floor high rise buildings, radios, or televisions. They didn't even dream about airplanes, rockets, and missiles. And too, no one supposed that the value and worth of certain items would change, like the stock market. Indeed, no one conceived of how the world, humans, creation, customs, cultural, and even our concept of truth would change, but one thing never changes, Jesus Christ! Amen!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yes and forever" (v. 8). Everything earthly will change and decay, but Jesus will never change. He is alive! He is the changeless Lord, Savior, and Redeemer of all mankind.

Nature changes all the time. The mountains, fields, oceans, and clouds transform all the time, one never sees the same cloud twice. The seasons change: spring brings new life, summer blossoms and grows the new seed, autumn yields new harvests, and winter rests the soil. All of nature changes. Fashion changes too. Hair-styles, clothes, cars, airplanes, and even telephones come in colors and sizes that are mind boggling. It seems everyone in carrying their little toy telephone around in their pockets! Nations change. The Pharaoh's of Egypt thought their power would last forever, Julius Caesar thought Rome would always be his, and

think of the Assyrians and Babylonians and how their nations fell. Great England, Africa, and Russia have changed. The map of Europe keeps changing because conquerors keep changing. But Jesus is forever and ever the King of kings!

Science and technology are probably the two fastest changing elements in our world. Everyday we

quickly. Family changes follow suit with science and technology. We never thought about family break-ups until death before, but now I look at the news and hear that out of every 200 couples getting married in South Korea, 71 of them end in divorce. Friends change too. We don't even know our next door neighbors anymore because we're just too busy keeping up with

one that this, that on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and "Just as the Father has loved Me, I have also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13&9). He loves even the enemy - the whole universe. He forgives the sinner (Lk. 23:34; Isa. 1:18). His power is awesome, eternal, and never changing (Mt. 28:18). He met Saul on the road to Damascus, and Paul never changed after that encounter, "and I give eternal life to them, and they will never perish; and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Jn. 10:28). He watches over us and He helps us everyday, "I will never desert you, nor will I ever forsake you" (Heb. 13:5). His objective and purpose never change because He wants to save us; He wants to reconcile us to God,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1 Tim. 1:15). Jesus is always gracious and He offers the water of life freely,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2:17). Jesus tells us,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the one who comes to Me I will certainly not cast out" (Jn. 6:37). There's ultimate security in Jesus. He asks us to proclaim the Gospel (Jn. 20:21). This is the gospel—the changeless Jesus Christ. All meaning of life is found in the changeless Jesus Christ,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l. 1:21). Amen! 🙏

"Remember your leaders, who spoke the word of God to you.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and imitate their faith.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Do not be carried away by all kinds of strange teachings. It is good for our hearts to be strengthened by grace, not by ceremonial foods, which are of no value to those who eat them."

discover something new. Science books that are older than five years are outdated. New medicines come on the market every year. Even nursing care has changed. Ten years ago after having surgery you were suppose to stay in bed for at least a week to recover. Now, you're suppose to get up and move around as soon as possible. Cancer, AIDS, and cloning are definitely science changing. Computers have rocked the world. We can sit in our own room and travel across the world in cyberspace to fellowship with a friend. And too, computers and all their gadgets get outdated very

information. But Christ is changeless. Jesus never changes.

We are living in a changing world but we have a wonderful Lord that never changes. We need to appreciate the unchanging Jesus who is our Lord and Savior. He never changes. His character never changes. When we feel good we think we're great and when we feel bad we think we're bad. Jesus is like a crystal that sparkles and shines with light that never fades. Over the last 2000 years people have tried to cut him down. Jesus' love penetrates everything and never changes, "Greater love has no



김성록 목사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히 13:7~9)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없음이 변하는 세상(1)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난 100여 년간은 정말 놀람도록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말을 이용한 동력만 생각했을 뿐이었지, 그 누구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시간에 150km를 달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100층 짜리 건물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나 로켓, 미사일 같은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주식과 같은 어떤 특정한 이익의 가치에 대해서 추측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이 세상과 인간들, 자연, 동물,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일부는 썩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 분은 변함없는 인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없음이 변하는 세상(2)

자연은 언제나 변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 그리고 구름 등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도 똑 같은 구름의 모양을 두 번 보지는 못합니다. 계절도 바뀝니다. 봄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여름은 새로운 생명을 꽃 피우며, 가을은 추수를 가져오고, 겨울은 땅에게 안식을 베풀어 줍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유행도 변화가 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스타일 · 옷 · 자동차 · 비행기 그리고 심지어 전화기까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색상과 크기로 등장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작은 장난감 전화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절대권력도 변합니다. 기점의 바로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율리우스 켄서는 로마가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임

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들, 대영 제국, 아프리카와 러시아의 큰 나라들, 그 모두가 변했습니다. 유럽은 그 정복자가 누구냐에 따라 항상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왕 중의 왕입니다.

없음이 변하는 세상(3)

과학과 기술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 두 가지 요소일 것입니다. 매일 매일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과

잡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기 전에는 부부가 헤어질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대한 민국에서 결혼한 200쌍 중 71쌍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이웃도 변합니다. 우리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쫓아다니느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거하(요15:9). 그 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눅 23:34, 사1:18). 그 분의 권세는 장엄하며 영원하여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마 28:18). 예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고, 예수를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로 결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8). 주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항상 도우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3:5).”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피스니라(딤후 1:15).” 예수께서는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무상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여기에는 예수 안에 완전한 보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우리가 믿지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아멘. ■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군계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학적 사실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과학서적들은 금방 옛날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약이 매년 개발되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환자치료에 대한 의술도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만 같아도 수술한 후에는 적어도 일주일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치료와 간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과 에이즈 연구 그리고 인간 복제, 이들 또한 과학적 변화의 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는 세상을 뒤흔들이 놓았습니다. 우리는 방에 가만히 앉아 가장 공간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의 변화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따라

변함이 없으신 예수

금번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놀라운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비참하다고 언덕을 부리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수정과 같습니다. 지난 이천여 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를 켜야 내리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

아프리카 R국 최은아, 권요셉



▲ 최은아 선교사

13시간 가량 버스를 타
면 갈 수 있는 장거리
사역여행을 다녀왔습
니다. 그런데 실절
적인 시간은 17시
간이나 걸렸죠.
왜냐하면 이들
무슬림들은 기
도시간을 지
켜야 하기 때
문입니다.
기도시간이
되면 모두가
비스에서
내려 기도
를 하고 다
시 출발합니
다. 한번은 급
히 사야할 물건
들이 있어서 상
점을 찾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점들 역시 마찬가지였
습니다. 그 때가 기도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이 정지되는 시간. 그 시간에 선교사란 이름을 걸고 이
곳에 온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입
니다. '저렇게들 열심히 해도 저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을 텐데, 더불어 천국에 이를 우리들은 저들의 열심히
만큼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동정심과 안타까움
반, 그리고 반성의 마음 반으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받는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강했습니다. 천국엔 술과 여자가 가득하다고 믿는 그
이리서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좀저
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해서 어떻게 접근해
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하심'이라는 무슬
림과 친구가 되었다가 예수를 전한 후로 친구 관계가
깨어진 적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
역시도 무슬림의 관계가 남아 큰 갈등을 해 놓고도 하
나님의 뜻이라고(무슬림들은 좋은 일 좋은 모든 상황

을 알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오장쯤을 놓기도 한단
니다.

최은아 선교사는 정은희 선교사와 함께 000 성경
학교 행정업무와 이웃 사역 전체 회계일을 담당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주일학교 소풍 때 레크리에이션을 인
도해서 놀이 공간이 없는 크리스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권요셉 선교사는 권영일 선교사와
함께 청년 사역과 지방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에는 크리스천 청년들과 컨퍼런스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바램이며 기도제목이라면 돌
아기는 그 날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지는 모
습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적었듯이 무슬림은 강하
기 때문에 변화하기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
리로 인해 단 한 영혼이라도 영생의 열매를 품게 된다면,
이것은 선교사로서 더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각자 한 영혼을 위해 기도중에 있습니
다. 최은아 선교사는 박수인 전임 선교사의 씨앗인 '나
다'라는 무슬림 친구를, 권요셉 선교사는 '햇살'이라
는 윤전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햇살의 경우는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세례에도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 양육만하면 되지만 '나다'의 경우는 아
직 무슬림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주 식상한 말입니다만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
고 합니다. 성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시키리라 믿습니다.



▲ 권요셉 선교사

2001년 여름 단기선교단원 모집

나라	인원	기간	지역	비고
몽골	0명	7.30~8.10.	0LMTC수료자	의료지역포함
CIS	0명	7.23~8.3.	0집중LMTC수료자	의료지역
아프리카	0명	7.23~8.3.	0회양되는 부사추천 요망	
스리랑카	0명	8.6~8.17.		
방글라데시	0명	8.6~8.17.		의료지역
인도	0명	7.30~8.10.		

* 항공료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료팀에는 현직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 간호
대학생도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지성광화

1. 전도에 대한 오해
2. 복음의 정의와 전도의 필연성
3. 전도의 내용 (2)
4. 결실의 의미와 내용
5. 전도의 실제적인 문제
6. 전도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3)

7) 교회에는 왜 그렇게 교과가 많아?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
서 관심이 많으신군요. 다음의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
시기 바랍니다. 묘목을 심은 후 일정한 시간이 흘러 나
무가 자라면 가지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무
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여러
교과가 있다는 것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흔히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는 많아도 뿌리가 하나
이듯이 기독교도 여러 교과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두가
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 기독교만 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이 아닌가요?

기독교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한 분이라고 말
할 때 독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것이 사
실이기에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리되는 일은 모든 우
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분만이 인류를 죄에서 건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단이 아니라 사실입니
다. 어떤 가족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되려면 그 가정의 부모
에게서 태어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
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결코 기독교는 독단적인 종교
가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과 부활과 생명을 전파하는
참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9주에 걸쳐서 전도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
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동참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일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전도대의 강
의안을 기초하여 글을 실었습니다. 앞으로도 추천전
도대에 실제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홍 현 민 목사·전도위원회 지도)

개인이나 타 기관 파송 선교 사역자 파악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로 등록하도록

교회는 본 교회 성도 중 개인이나 타 선교기관의 파송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등록을 요망하
고 있다. (사식, 아래 참조)

이는 이들을 파악하여 격려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선교사역 중 본교인들을 상대
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로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교적번호	이름	교구	성별	생년월일	파송기관	사역지	사역기간	연락처

13기 LMTC(종회신교훈련원) 훈련과정

1. 평신도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월 31일~6월 23일

교 육 비: 5만원(분할 납부 가능)

단기교육과제 대상국:

아프리카, 몽골, CIS,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문 의: 선교위원회(567-9544, gwww@unitel.co.kr)

2.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수시

교육비: LMTC 수료자

제출서류: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사역지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3. LMTC 어학강의

LMTC 교육과정 가운데 '어학훈련과정' 이 다음과
같이 개설됩니다.

시간/장소: 매주 토요일 17:30 / 메디나홀

강사: 영어 - 하미다(原語民)

스리랑카어 - 가미나(原語民)

몽골어 - 솅타(原語民)

아랍어 - 이성욱 전도사

러시아어 - 송요한 전도사

성경,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

김성호 (청년2부)



철학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하여 토론을 하던 중 교수님께서 저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는 술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수업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우가 '너무도 종교적이어서 않습니까? 그게 가지고 어떻게 객관적인 학문이 되었습니까?' 라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건과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문의 기준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경에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자기 생각과 사상이 학문의 기준이 되듯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이 학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배제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학문은 성경의 조명과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 학문은 그 자체로 인하여 성경의 진리가 밝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성경의 사상과 위배될 때 그것은 참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학문만이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성경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절대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흔히들 종교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 경제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역할을 보자고 한다면 교회와 경제의 영역, 경제의 영역은 다릅니다. 교회가 정치를 할 수 없고 교회가 기업활동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참다운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정치, 경제, 학문과 피조세계들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 경제, 학문의 영역에 관여 할 수는 없지만, 학문과 삶, 정치와 모든 것들은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으로 세계를 보십시오. 성경으로 경제를, 정치를, 문화를, 학문을 철학을 보십시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오,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세상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망입니다. 그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신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로마 11:36)."

동계수련회를 마치고

마영숙 (청년2부)

처음 참석하는 동계수련회였던 지난, 먼로회의 한 사람으로서 준비하는 입장이라 처음부터 수련회에 대한 설렘의 기대치는 나의 몫이 아니었다.



30대로 살고있는 요즘의 내 모습을 보고 있자면, 예전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은 간데없고 적당하게 편안함을 꿈꾸는 게오른 모습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에 대한 실망으로 나 스스로에게 강도 높은 야유를 보내지만 역시 일시적으로 끝나기 일쑤다. 비단, 난만의 모습은 아니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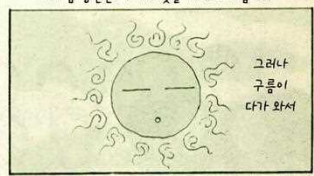
일년에 두 번 있는 특별한 시간(동·하계 수련회)에 우리 청년2부 지체 모두가 주인공의 자스로 참여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마음속인 애곡로 호소하고 싶다. 어린 후배들은 찬송기간이라 너그럽게 이해하더라도, 특별히 성숙된 선배들은 이러한 모임에서 주제가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바람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슴 저미도록 느꼈다. 비록 적은 인원인 함께 한 수련회였지만, 그 모임은 은혜 찬양, 기쁨 찬양의 시간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할 따름이다.

"사랑하는 청년2부 여러분! 시련 수련회에는 주제적인 참여로 배가되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공유해 보시길요!"

수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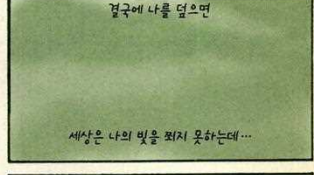
글·그림 김병현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빛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다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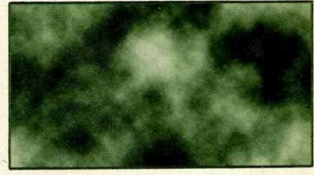
절망에 나를 덮으면



세상은 나의 빛을 쫓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빛을 받았다고해도 그건 구름에 가려져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의 태양이 나의 성도야 보이지 않아도 소용이 없어도, 그럴지라도 빛을 발하라, 항상 빛을 내라!"

영혼 구원에 이르는 찬송

이현숙 (청년2부 교사)

주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에 맞춰지도록 우리의 생애 전 기간 동안 육신의 질병, 사업의 손실, 가정의 문제 및 인간관계 등의 여러가지 방황을 통해 간섭하십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찬송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처럼 찬송 또한 성령의 감화로 작사·작곡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찬송은 참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영적전쟁의 무기로써 한 몫을 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덩어리, 덩어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는 것을 찬송 속에서 고개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또한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도 믿음의 인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임을 찬송은 밝혀 보여준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성령을 기르시는 육신의 정욕에서의 이김도 찬송은 신비의 특효약임을 알게 해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길 때에도 주님은 찬송으로 심판의 때를 보게 하신다. 이러한 능력의 찬송이 우리 믿음에서 쉬지않고 불리워질 때, 주님의 나라를 향한 영혼 구원의 계획은 필적지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아직 주님을 보모는 형제, 자매를 위해 찬송하라. "회개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찌라." (시편 9:11)

형, 나 사랑 됐어

지난 12월 중순, 서울의 진땀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갈릴리마에 와서 한 이를 정도 머물다 가겠다고 말이다. 진땀이는 너무나 장면에로, 같은 뇌성비바 장면에이긴는 아니지만 지름을 만나 결혼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 동안은 동사무스의 배려로 청춘나 잡다한 일들을 하고 끝없는 밤의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요즘의 근황은 통틀어 그렇고 있었다.

성탄절 이틀 전, 갈릴리마에서 만난 진땀이는 나만큼이나 열을 지어(?) 있었다. 갈릴리마에서 두 세대의 흐름을 가르키는 수 있는 것조차 진땀이가 나를 따로 부르거나 간히 나에 말이고 했다. 그와 마주하여 내가 그가 대를 나에게 이었다. "하하하, 형! 나 사랑 됐어!" "뭐라고? 형?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소리쳤다. 진땀이가 놀라운 사연이있고, 가장인 부부에게 사연을 얘기 하러할 수 있는데 있는 신도 가운데 열연이이 주지않는 것이다. 말하건만 사람과 통하는건 자기들이 하는 열연이이 사연이이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하지만 진땀이 이야기로는 몸이 불편한 그 부부에게 그 부부에게 어려움이 아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 바스를 먹고 역으로 출근을 하면 점심 11시에 돌아온다. 그래서 씻고 잠을하고 어찌하고 금방 12시만다. 그러는 날 잠이 모자라고, 그래서인지 진땀이의 몸이 피로에 떠어 몸이 췌장 췌장에 있었다. 술까지 주면 힘 든다. 하지만 진땀이는, 필연 열연은 대까지 해보고, 도저히 감을 줄 수 없었던 그 한 부부에게었다. 지금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한때는 그 일을 자신들에게 맡겼을 때 무엇인가 뜻이 있지 않았나. 나를 오히려 위로하였다.

진사 주, 진땀이는 기쁨을 뒤적거리는 무슨 봉투를 하나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이게 뭐고?" "이게... 우리 첫째 수인 전부터는, 이하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형에게 가져왔다." 내가 배로 소릴 질렀다. "아, 뭐라냐? 나 제 정신이냐?" 나지나 이거, 혹시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자 진땀이가 총분하여 사지를 뒤흔들며 나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그 상의해서 결정한 거. 진땀아!" "정말이지?" 나는 몇 번이고 확인했다. 감성도 남자인 진땀이, 어쩔 수없이 다른가 부자처럼이고 멋가지고 없는 고집쟁이 남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행여라도 이런 결정을 혼자 일방적으로 내렸을가 걱정이 됐다. 결국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혼자 내린 결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됐다"고 답하고서 봉투를 열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뽕뽕한 10만원권 수표 다섯 장이 들어있었다. 순순, 내 손이 잠시 떨었다.

"50만원?" 진땀이가 말했다. "응! 그거 지난해에 우리가 번 수입 전부터."

"..... 전부? 보통 열었다. 뇌성비바로 몸이 불편한 그 부부가 한 달 내내 반의 사연을 실며 몸이 오소리다위로 열심히 일하여 번 수입이 50만원! 지금 내 손에 50만원이 쥐어져 있는 것이다.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뭉클해왔다. 지난해 그들 부부에게 그런 양이나 큰 액수인가? 그것은 천금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돈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부가 그 첫 소득 전례를 '하나님께' 드렸었나? 나는 몇 번이고 이렇게 '하나님께'라는 말을 곧 '이웃을 위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잠시 큰 봉투를 열어 보았을 참으로 침묵과 고요, 그다. 나한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드린 손이 부마'라며 다시 그에게 물었다.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겠노?" "그냥 형이 알아서 잘 써 줘." "알았다. 이거... 보통 돈이 아니니 나눠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잘 지출하라." "고맙다. 형! 진땀이는 다시 거들며 돌아갔다. 지금은 진땀이는 (순박) 전례를 어느 모로든 신도 가운데로 신도를 팔고 있을 것이다. 진땀이에 신도 가져다주는 일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 부부에게 좀 더 많은 수입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때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두 사람이 먹고 살만 큼의 수입이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최홍준(발해, '낯선 해리원' 방문 일지)

구역탐방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4교구 잠원1, 2, 3구역



엣제만 해도 찬바람이 불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이제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그 동안 약간은 느슨해졌던 생활을 다잡고 새 봄을 활기차게 시작해야겠다. 여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활기찬 구역, 잠원 1, 2, 3구역 식구들이 세 구역에 대해 소개한다. (참고로 이구역 모임은 연합 모임이어서 구역장님이 세 분이.)

가자는 황영림 구역장님의 차에 동승한 세 명의 구역식구와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다. 봄 햇살이 밝게 내린 기실, 정인숙 구역장님과 먼저 와 계시던 황주옥 권사님 외에 두 분의 잠사님이 둘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계셨다. 이어서 환한 미소로 차례차례 등장하는 식구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가득하다. 모두 모인 사람은 14명. 시간도 비교적 엄수!

자 이제 구역예배 광경을 몇 가지 살펴보자. 구역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을 부르고 공과공부를 시작되었다. 오늘의 공과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핏박이 있다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들어갑시다. 라는 황영림 구역장님의 인도가 있었다. 그런 다음 본문 말씀을 토대로 토론식 성경공부가 진행되었다. 본문(행12:1-17)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에루살렘 교회는 기도하였다. 그들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실어했기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담대히 기도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팔장을 볼 때까지 하는 기도, 옥문이 열릴 때까지 하는 기도'였다. 바로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옥문이 열린 것이다. 교회는 놀랐고도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기도는 모든 적들을 향한 최고의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에 모두가 동감하면서 공과공부를 마쳤다. 그런가하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으니 기도합시다.'라는 황주옥 권사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이 모든 순서가 끝나고 차려진 점심상을 보는 순간 잠깐 놀랐다. 그것은 정인숙 구역장님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성령에 구역장님과 황영림 구역장님이 가지 오신 만두와 잡채가 곁들여져 마치 잔칫상 같았다. 내어놓음과 섬김이 있는 모습은 초대교회의 부림적이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음 구역예배 장소를 정하고 집을 나서는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문제가 있으면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는 잠원1, 2, 3구역이 되기를...

(김섭희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유이순 · 강향순' 부부를 소개합니다

유이순 형제는 아내 강향순 자매와 함께 미국을 여행하다 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유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결혼 전부터 믿음생활을 하던 아내와 함께 기독교를 믿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마음에 의심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공부를 통해 해결되리라 믿으며 새가족부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호실

1교구 김천체 장로(남57세)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검진 결과 깨끗해졌습니다. 그 동안 성도님들의 기도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미영 성도(여19세)** 혈압과 부정맥으로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5교구 김양녀 집사(여75세) 신부전증으로 관상동맥 절단 연경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정옥경 권사(여97세)** 골반 골절 수술 후 상태가 양호해졌으나 이번에는 담석증으로 서울대병원 용궁실에 계십니다. **고길중 성도(남41세)** 간암, 직장암,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본관 452호에 입원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 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7교구 이남현 집사(남46세) 검사 결과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으며 퇴원하여 약물 치료 중입니다. 꾸준히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옥 성도(남57세)** 장췌관종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범용 성도(남42세)** 여러분의 기도여 은혜를 풍수히 이식하여 양호한 상태입니다. 퇴원하여 매주 금요일 통원 치료 중입니다. 끝까지 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경희 집사(여53세)** 난소암 수술 후 4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두 번의 항암 치료가 남았습니다. 항암 치료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갑순 성도(여68세)** 심장 협심증으로 경찰병원 733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유금별 권사(여65세)** 담석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병원 153병동 33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8교구 심정태 성도(남44세) 3월22일에 누나의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로 점차 회복되는 지체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병마와 투쟁중인 환우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혼가정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위 진 우 (신혼가정부)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계속되는 감정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작여일(始終如一)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개인의 내면 속에서 깊은 밤 혼자 자라는 순간이나 잠들기 전 침대에서 잊어가는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게 되면 모두가 느끼는 공통의 자화상이 아닐까?

비록저단(肥肉之獸), 유비가 자신의 살찐 다리를 보고 호화로운 생활로 태어난 자신을 탄식했다고 하는데, 믿음의 정열은 사그라져 버린 제 儀式的 화식 속에서 회미해져만 가고 있던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반성하고 싶었고, 신앙의 뜨거운 불꽃을 다시 한 번 점화하고 싶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열망을 신혼가정부 겨울수련회라는 자리를 통해 채워 주셨는데, 비록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다소 늦은 시각, 출원기도원에 도착해 개회예배를 드리면서 차가운 날씨처럼 식어 있던 마음이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로 달아오르고 있었고, 반별기도회를 통해 각 가정의 기도주제를 공유할 때는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주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듯 권사님의 '부부관동의 성경적 해설'에 대한 특강을 듣고 부부산책을 하며 그 동안 우리 가정이 겪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통해 여러 가족들과 개임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아침과 간식, 푸근하고 따뜻했던 숙소, 정감하고 맛있는 식사라는 믿음의 우배들을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믿음의 초심자인 우리 부부에게 이번 수련회는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뿐이라고 생각된다. 신앙은 주님이 배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두드러지고 간구할 때 얻어지는 소중한 결실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도 우리 영혼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간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이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음의 초심자인 우리 부부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다.



사랑부 겨울 '성경 학교를 마치고

뽕사가 사닌 섬기는 따스스로



3월 1일, 부모님의 손을 잡은 학생들이 집회소들 어렸다.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찬양과 묵사의 설교로 사랑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말씀이 학생들 마음에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등등 '생활 속에서'의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선생님들과 학생이 일대일로 만나 이야기하였다. '체조시간'에는 찬양에 맞추어 선생님과 학생들이 짝이 되어 어깨를 주물러 주고, 일과 땀기면서 서로의 정을 쌓아갈 수 있었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알맞았던 시간은 학생들의 식사량까지 평소보다 늘어나게 한 듯 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많은 시간 준비하지 못해 엉성한 성극이었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마냥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성경학교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교회 주변에서의 '노방전도'였다. 비록 말의 표현과 행동의 어눌함이 있는 학생들이지만 '예수

지에게 듣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온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큰 사랑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주일 중 주일에만 만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분치 않음을 깨닫고 힘들어한 적이 있었다. 내가 이런 고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선생님께서 '우리가 사랑부에 온 목적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하기에 섬기러 온 것이다.'라는 권면을 해 주셨다. 맞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들에게 핑가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나의 오만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들 역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지체인 것이다.

이들의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소망하며, 또 또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최지은 (사랑부 교사)

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사랑부 교사로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처음 사랑부 교사로 오게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고등학생 시절, 나는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장애인들을 보았고 그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나에게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과 마음을 주셨고, 사랑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사랑부 학생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진

수화 공부를 수료하면서

오동혁 (집사, 에바다부 교사)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나는 같은 구역에 사시는 권 사님의 영향으로 에바다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동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서로 친교하며 알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해서 시작한 것이 수화 교실이다.

2년전 1998년 3월에 초급반에 등록하여 아주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예쁜 동아인 안영희 선생님께 수화를 배우고 초급반을 수료하였다. 그 후 지금 에바다부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유성철 전도사님께 중급 수화를 배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I.M.F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사일이 어려울 때 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중급반을 수료했지만 솔직히 배울때만 기억하고 일주일이면 다 잊고 다시 배우는 공부였기에 안 배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도 마음 속으로는 언젠가는 사용하고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면서 그후 1년 6개월간은 쉬고 있다가 2000년 8월에 개인적 사정으로 고등부 교사로 그만두면서 고급반에 등록하여 긴지런 선생님과 동료 수화반을 배우고 수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수료는 했지만 솔직히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면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에바다부에서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더욱 수화를 잘 배워 동아인 형제 자매와 서로의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삼기로 결심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잘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 깊이 나의 감정을 동아인 형제 자매들에게 표현 할 수 있고 그들의 감정을 알 수 있는 실력을 쌓아 그들의 귀가 되어 주고 싶다.

부디 하나님이나 사랑과 은혜로 계획된 일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

성경의 생

'시편(Psalms)'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①

시편(Psalms or Psalter)은 70인경(100, 구약 헬라어 성경)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비파(harp)나 수금(tyre) 또는 류트(lute, 기타와 비슷한 악기)와 같은 현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언급하는데서 기원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히브리 현악으로는 '테힐렘'(tehillim)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도. 그리고 시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과 찬양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은 전부 5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유사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각 권은 영광송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선 각 권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권은 1편~41편까지인데 저자는 다윗이며, 창세기에 묘사된 '인간'에 대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권은 42편~72편까지이고 저자는 다윗과 고리이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구속'이라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권은 73편~89편까지인데 저자는 아사이며 '예배'라는 레위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권은 90편~104편까지이고 저자는 미사이며,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방황'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고, 마지막 5권은 107편~150편까지인데 저자는 다윗이며,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내용이 다 이러한 관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다는 말씀이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희 목사·출판국 지도)

너희는 그라도의 편지



주님의 증인

인듯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직장을 옮겨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험이 들었지만 마음이 잘 맞는 입사동기가 있어서 학창 시절 단짝처럼 일이 끝나면 같이 집으로 가곤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그 친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친구의 부모님부터 친구까지— 그 친구도 물론 나에게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나에게 대한 많은 이야기는 물론 예수님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Q.T였고 나의 삶이 목표와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나에게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끝났다. 그렇게 그 친구가 나를 통해, 아니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어떤 순간부터는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힘이 나기도 했다. 그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나의 생계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알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만난 첫 사람이 바로 입사동기였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교리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는 후 나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있길 기도해본다.

(염정식 집사)

교회소식

◆ 4월 주일 및 수요 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 예배 (인수집사)	수요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4	1	정오식	이병욱	김종구	김은호	임무천	고순광	임근예	김호순
	8	안종욱	이 훈	홍순규	박민원	노광현	이실호	유경자	방정숙
	15	장식득	이형수	김동현	안동현	김기환	안석원	박종영	유기순
	22	장기형	이태식	이계인	박덕양	황의만	오정현 장로	김성업	김성희
	29	김재두	박승규	권병대	최옥순	이병하	임창식	송태연	안정자

- 일 령**
1. 제1교육용 내의 취사도구 치분
교육용 내에 취사가 금지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3월 31일까지 취사도구 일체를 치분하시기 바랍니다.
 2. 구제헌군 단내
오늘 1부~5부 예매제가 있습니다. 지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예매다부 주일차량 봉사자 모집
시간 : 매주일 오전, 오후
구간 : 상도동~교회 앞북
운행차량 : 교회 승합차
문의 : 예매다부 부사실(내선 416)

모임

1. 장로 월요일예배기도회
일시: 26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성도회 요일새벽기도회
일시: 27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배다나룸
3. 찬양위원회 찬양회의
일시: 오는 일요일에 후
장소: 찬양위원회실
4. 나년전후부 불매회
일시: 오는 15:15
장소: 강민룸
5. 교정전도회 불매회
일시: 오는 15:00
장소: 배두나룸
6. 교구위원회 불매회
일시: 오는 15:30
장소: 선교교 5층(당회실)
7. 권사 4차회 불매회
일시: 28일(수) 수요일부매회 후
장소: 영아실

1. 베드로 :

- 장소: 교육관 41호
2. 오후 9시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갈릴라홀
3. 에스더 10시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복거관 지하1층

2018

1. 강동철 군(강영수 집사, 이광순 권사의
 들)과 김현정 양(김용산 집사, 권미선 집
 의 딸, 12교구) / 31일(토) 14:30 여의도
 화종관 한화빌딩(26층), 3772-7752

군전도회 특강 / 월례회

군건도회는 군선교·군복음화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
이룩하고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을
과 있습니다. 비전2020 실천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사역
하는 이광철 장로님의 특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제: 비전2020
강사: 이광철 장로(전북군대장, 합창의장)
일시: 9월30일 17:30(식사16:30)
장소: 갈릴리움(식사·배우기룸)

사랑의 옷 나누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옷 나누기' 하고자 합니다. 작거나 유행이 지나서 못 입으시는 옷 있으시면 실업인 전도회 사무실로 가지고 오세요. (매 이 세탁해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실.

1. 대상기간: 2000년 결산과 2001년 1월
2. 대상기관: 각 위원회 산하 전 부서
(단, 남녀 각 전도회는 전도위원회와 감사과 받고 군, 참, 교령, 실업인, 이미술, 학원 등 특수전도회는 본 글을 수감할 것)
3. 제출서류:
시산표(2000년 결산, 2001년 1월 시산표), 금전출납원장,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시제 현금 또는 예금통장(인 포함)
4. 감사실시기간: 2001. 2월부터 3월 마지막 주일까지
5. 감사실시장소: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354번)

충현기도원 묘지(墓地)이장 기한연장 공고

충원기도원 소재의 묘(墓)가 유족본들의 협조로 이장 많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장하지 않은 묘를 아
의 기간까지 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01년 6월 말까지 연장함
안내: 교피 552-8200*(406) 충원동산 031)764-9617

2001학년도 충현경로대학 1학기 학생 모

1. 현재 : 안동시 서초4길 호환가를 뒤회어 2층기제
- 가. 제1차 계획 : 3.29~6.21(1512주)
- 나. 제2차 계획 : 8.30~11.15(12주)
2. 교육대상 : 현행 안동시에 아성인 자로서
가. 본교의 성도 중 지원자
나. 타교의 성도 중 지원자
다.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중 지원자
3. 운영시간
주 1회 5시간 수업 : 매주 목요일(중심지는 교회에서 제공)
4. 등록금 : 재학기간 동안 10,000원
5. 입학시험 : 1등(본교에서 비하)
가. 입학시험 1등은 장학금 10만원
나. 중등부등록비 1등
다. 만일합격자 사정간 주 1회, 등록비 : 10,000원
6. 서류 제출기간 : 2001. 2.18 ~ 3.12
7. 제출처 : 교육훈련연구부(교육관307호), 경찰청장회의 사무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246	이영하	2	청년2부	임영진(7)	257	박경은	19	고등부	장혜진(4)
247	주미라	4	주마다	이성희(16)	258	정경은	19	고등부	연국(4)
248	김영철	4	바울	김영희(16)	259	이승애	19	청년1부	공성현(7)
249	김현준	4	청년1부	이명희(16)	260	이예은	19	청년2부	
250	김정현	13	청년2부	안혜경(5)	261	오익식	7	바울	표찬석(1)
251	임정숙	13	청년2부	안혜경(5)	262	조금주	7	매곡	표석학(7)
252	정규훈	15	청년2부	김정민(16)	263	이정민	19	고등부	
253	이	15	청년1부	박재현(15)	264	김지수	5	대학부	박진우(1)
254	김현숙	16	주마다	김금경(16)	265	백희재	19	대학부	김진경(19)
255	이태호	16	청년2부	임정현(13)	266	최희재	19	대학부	황영서(15)
256	강수아	16	청년2부	김상수	267	배미혜	19	대학부	안지우(19)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

시간 : 1, 2, 3째주 토요일 14:00-1

진료대상: 강남구 내 장애인, 수급권 대상자
진료과목: 보철, 의치를 제외한 모든 과목
문의: 충현복지관 ☎ 564-4885 내선 3번)
치과진료 담당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셔야 진료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2001 충현체육대회

진행위원 각 본부별로 준비에 박차

5월 1일, 2001 중현체육대회를 앞두고 본부 임원들은 지난 16일(금), 금요일회 후에 모여 모든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거의 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분과는 기획본부에서 작성한 준비사항과 체크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부부별로 모여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을 확인하고 정리했다.

또한 이계무대표 체크 리스트에 의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현장 답사와 실사들을 통해 준비해 나가게 된다. 매 주일 오후에 모이는 본부장 및 팀장 회의에서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각 부서 및 팀별로 조율할 바를 조율하고 수정할 바를 수정하며 철저하게 모든 사항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지난 주간 증언을 각 본부 내의 각 본과별 오묘를 가져 각 본과가 감당할 일들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을 각 본과별로 가졌다.

각 팀에서는 경기종목 선출에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어깨동무 릴레이'와 '굴렁쇠 릴레이'의 선수를 선발하고 준비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응원에는 많은 비중을 두었기에 각 팀의 볼록뚱뚱은 응원전을 기쁘게 볼 만하다.

4월 8일(주일), 오후에는 각 팀에서는 경기선수까지 모인 자리에서 전체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따라서 각 팀에서는 오늘, 3월 25일(주일)까지 종목별 선수명단을 확정하여서 기획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조선국	조근권 경상도고령군	김은호 경상도고령군	노광헌 당포 4대
오진국 호남국	이병학 고령군	윤원헌 충청도	최태현 충청도
엄필성 전주국	김보용 고령군	오정헌 전주국	이훈 전주국
남선우 문흥군	서동석 영양현	정운석 고령군	김영길 고령군
문홍구 봉화군	조계진 영양현	김우경 17대군	최무길 해평현
김천재 충청도영동	이창호 시흥군	차진식 경남의령	김재명 충청도
박명식 봉화군	김장남 경남의령	이종선 5대군	윤성철 경남의령
이하영 전주국	박민건 14대군	김민관 경남의령	이병욱 경남의령
안종욱 재령현	최명환 15대군	임우진 경남의령	이종식 창녕군
최기훈 경남의령	이갑재 15대군	전운호 2대창녕군	전후택 9대창녕군
이경우 경남의령	전단용 창녕현	한영일 창녕현	신철 4대창녕군
한승균 전주국영동	김영수 창녕현	정훈식 창녕현	김창기 창녕현
원운철 12대창녕군	이형수 창녕현	안동현 창녕현	황의만 대창녕군
구기형 고령군	홍욱민 이현진	이인환 임진강유역정착장	박덕환 창녕현
이대식 10대창녕군	장태두 전주국	박규근 가평현	권명욱 창녕현
최서현			

■ 부록

[illegible]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이해, 회귀, 동심적예배)	본 당
	IV 오후 1:00(이해, 동심적예배)	본 당
	V 오후 3:00 (결혼식, 기도하는예배)	본 당
전 일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1:00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 요 집 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